

성별	남	나이	52세	직종	레미콘 운수	직업관련성	있음
----	---	----	-----	----	--------	-------	----

1. 개요

심○○은 레미콘 트럭 소유주의 1인 개인사업자로 A사와 2007년 계약하여 시멘트 운송업에 종사하고 있다. 2010년 3월 레미콘 트럭 믹스 안에서 믹스벽면에 붙어있는 폐시멘트를 제거하기 위해서 드릴 및 망치를 이용하여 작업을 하고 밖으로 나오는 순간 현기증이 나고 귀에 소리가 났었다. 멍하고 잘 안 들리는 현상이 지속되어 2010년 5월 이비인후과에서 돌발성 특발성 난청으로 진단을 받았다.

2. 작업환경

심○○은 레미콘 트럭 소유주의 1인 개인사업자로 A사와 2007년 계약하여 시멘트 운송업에 종사하고 있었다. 1981년 군대(포병, 방위) 제대 이후에 1999년까지 자영업(덤프차 및 화물차 운전)을 하였으며, 2007년까지 시외버스 운전을 하였고, 2007년부터 레미콘 트럭 운전을 하였다. 2010년 3월 레미콘 트럭 믹스 안에서 믹스벽면에 붙어있는 폐시멘트 제거업무를 처음 하였다. 폐시멘트 제거 업무는 오래된 차량인 경우에는 1년에 1회 시행하고, 신차의 경우 3년에 1회 시행한다. 제거업무는 믹스 안으로 들어가 드릴 및 망치를 이용하여 믹스벽면에 붙어있는 폐시멘트를 제거한다. 보통은 30분 작업 후에 20~30분 쉬는 시간을 갖고 다음 작업을 하는데, 근로자 처음 제거 업무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하고 5시간을 지속적으로 폐시멘트 제거 업무를 하였다. 드릴 작동시 작업환경측정결과 최고치 126.1 dB(A), 시멘트 제거 업무시 133.6 dB(A)이며 폐시멘트 제거 작업 시에 작업자에게 Noise Dosimeter를 착용하고 측정결과 145.3 dB(A)로 나왔다.

3. 의학적 소견

2008년 12월 일반검진검진에서 혈압, 당뇨, 간수치 상승으로 이상 소견이 있었으나 난청이나 다른 소견은 없었다. 2010년 6월 K병원에서 순음청력검사 3회 실시한 결과 우측:95 dBHL, 좌측:35 dBHL 이었다. 2010년 12월 특진을 의뢰하여 Q병원에서 시행한 순음청력검사 결과 우측:94 dBHL, 좌측:40 dBHL의 청력역치를 보였다.

4. 결론

근로자 심○○의 돌발성 난청은

- 폐시멘트를 망치와 브레이커 등으로 제거하는 과정에서 최고 145.3 dB(A)의 소음에 노출되었으며,
- 노출된 후 발생한 난청으로 노출소음의 강도, 발생간의 선후관계가 분명함으로 업무관련성이 있다고 판단하였다.